

문화

“길 위에서 배운 깨달음 ‘오리무중’으로 풀어냈죠”

카툰니스트 김동범(공주영상대 겸임교수)

세상에 부처가 되고 싶은 오리가 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님이 되었지만 종횡 무진 사바세계의 소용돌이 속을 헤쳐 가는 일은 만만치 않음에 분명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리무중’이다. 좌충우돌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리무중은 불교의 깨달음을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전해주며 네티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인기 카툰니스트 김동범 씨는 최근 불교 카툰 신문 '만만한 뉴스'에 합류하면서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만만한 뉴스'에 합류하며

불교 소재 작품 선보여

세월호 희생자 추모 그림도

리던 때였죠. 히말라야 곳곳을 다녔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도 가봤어요. 룸비니의 한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에 도취되어 하루종일 그곳에서 그림 작업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네팔 오지마을 사람들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 모두가 활짝 웃고 있어요. 결국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2일간의 네팔 여행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되묻게 되었고, 두 세 개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진정한 필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다. 또 네팔의 5살 소녀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하면 임신군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캐리커처 이발관’ 프로그램 진행, ‘시청앞 광장 세월호 희생자 추모 그림 그리기’ 등 물질과 재능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대학 다닐 때는 소외이웃을 위한 빨래·목욕 봉사 등을 했지만 생활에 쫓기다 보니 잊고 살게 되었죠. 네팔 여행 이후에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자 캐리커처 그려주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외이웃은 물론 여행지에서 만난 분들의 캐리커처도 그려줘요. 또 이번 세월호 참사 때는 300여 희생자들이 제주도에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료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려 시청광장에 걸기도 했죠.”

이밖에도 김 작가는 꼭 이루고 싶은 나들이 있다. 바로 네팔 학교에 칠판을 기부하는 일이다. “돌을 칠판 대신 사용하고 있는 네팔 학교들을 봤어요. 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 같은 칠판이죠. 그걸 보고 칠판을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지만 방법을 구하다 보면 길이 생길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 관련 서적을 보면서 조금씩 불교의 세계에 입문하고 있다는 김동범 작가. 그러나 그는 이미 그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재된 불성을 찾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 보인다. 구도의 길에 놓인 지구별 여행자 김동범 작가. 그래서 그의 작품은 밝고 강한 빛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만만한 뉴스에 게재한 '오리달마'



시민들과 함께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시청앞 광장 추모 길게 그림.

근원 밝히는 데 일념을 갖는다면

땅에서 솟아 난 돌로 만든 불상

논산 관촉사(灌燭寺)는 ‘은진미륵’이라 불리는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 218호)으로 유명하다. 관촉사의 창건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미륵보살입상이 건립된 것은 대개 968년(고려 광종 19) 무렵으로 보고 있다. 이마의 백호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묵기(默記)에 광종 19년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1743년(영조 19)에 제작된 <관촉사사적비명>에는 970년(고려 광종 21)에 시작 해 1006년(고려 목종 9)까지 37년 동안 조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묵기의 기록이 더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진다.

이 석조미륵입상은 그 조성 방법과 관련한 연기설화가 유명하다. 즉 한 여인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는데 어디서 아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은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아귀는 없고 커다란 바위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정에서 혜명(慧明) 스님에게 불상을 조성하게 했다. 혜명 스님은 사람을 시켜 미륵불상을 조성했는데 문제는 그 불상을 세우는 것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혜명이 어느 날 아래 마을(사제촌)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흉장난을 하는 것을 보았다. 가만히 보니 아이들은 돌로 불상을 만들고 그것을 세우는데 흙을 퍼다 언덕을 만들고 돌을 굴러 세우는 것이 아닌가? 순간 혜명은 미륵불상을 세울 묘한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불상 조성을 완성했다.

이러한 조성 연기 설화와 더불어 석조 미륵보살입상의 신동력으로 북쪽의 오랑캐를 물리친 이야기나 나라에 번개가 생기기 전에 땅을 흘리고 금빛을 발했다는 설화 등이 전한다.

시로 전승된 기이한 조성연기

<신증동국여지승람>제18권 충청도 은진현 불우조에 “돌미륵[石彌勒]이 있는데, 높이가 54척이나 된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고려 광종[光宗] 때에 반야산 기슭에 큰 돌이 솟아 오를 것을 승려 혜명[慧明]이 쫓아서 불상을 이루었다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묵은 이색[牧隱 李穡]의 시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묵은집[牧隱集]> 제24권에 전하는 이색의 시가 관촉사와 관련된 가장 노래된 기록이다.

마음지동백역리(馬邑之東百餘里) 시진현중관촉사(市津縣中灌燭寺) 유대석상미륵존(有大石像彌勒尊) 아출아출용종지(我出我出湧從地) 외연설석림대야(巍然雪色臨大野) 농부에도충단시(農夫刈稻充檀施) 시시류한경군신(時時流汗濟君臣)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② 논산 관촉사 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재미있는 조성연기 설화로 유명하다.

불독구전장국사(不獨口傳藏國史) 계묘중동변보급(癸卯仲冬邊報急) 아우강향치급급(我兄降香馳汲汲) 일장백지상소서(一張白紙上所署) 패향시간오감음(掛向指間吾感泣) 흥인패주조저청(興人敗走朝著淸) 지금가영선왕명(至今歌詠先王明) 회사소야사자환(回思少也侍慈顏) 목침정려부주환(目瞻頂禮淨舟還) 풍화수하인천회(龍華樹下人天會) 이의추적여기만(已擬籀跡於其班) 황우파필광요청(況又把筆廣邀請) 경심시재수부간(傾心施財誰復) 직절근원지일념(直截根源只一念) 삼세분명방촌간(三世分明方寸間) 남망운산기천첩(南望雲山幾千疊) 한살아금요각완(恨殺我今腰脚頑)

용화수 아래에 중생이 가득 모였을 제 이미 그날에 자취를 나란히 했었으니 더구나 지금 글을 지어 널리 초대한다던 성심껏 보시하기를 누가 다시 아끼리오. 근원을 밝히는 데 다만 일념을 갖는다면 삼세가 한 치의 마음 사이에 분명해지리. 남으로 바라보니 운산이 그 몇 천 겹이고 내 지금 허리다리 뻣뻣한 게 한스러워라.

이색의 시는 그대로 ‘은진미륵’의 역사를 설명하는 듯하다. 전해 오는 이야기가 종교적으로 매우 감동적으로 민초들의 가슴을 적셨기에 이색과 같은 선비도 그 이야기를 오롯이 시의 제재로 삼은 것이다. 이 시에서 절 이름이 ‘관촉사’가 아니라 ‘관촉사’인 것으로 보아 이색의 시대에는 그렇게 불리기도 했던 모양이다.

이색은 이 시의 제목 자리에 시를 지은 배경을 길게 설명해 두었다. 즉 ‘입술년에 있을 관촉사(灌燭寺) 미륵 석상(彌勒石像)의 용화회(龍華會)를 주선해 온 스님이 나에게 연화문(緣化文)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미 그 글을 지어 주고, 인하여 옛날에 내가 지당(慈堂)을 모시고 진포(鎭浦)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 절의 법회(法會)에 참여하게 되었던 일과 계묘년 겨울에 향(香)을 내려 법회를 열게 했던 일이 모두 꿈결처럼 기억이 나므로, 단가(短歌)를 지어서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바이다.’

이로 볼 때 고려 말기의 관촉사는 미륵 신앙을 상당히 깊이 신봉하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색과 같은 선비까지 직접 모연된 연화문을 지어 법회를 흥보했으니 말이다.

한산의 동쪽으로 백여 리쯤 되는 곳에 은진현이라 그 안에 관촉사가 있고요, 여기엔 크나큰 석상 미륵존이 있으니 내 나간다 나간다 머뭇속에서 웃었다네. 눈처럼 하얗게 우뚝이 큰 돌을 임하니 때로는 맘 흘러 군신을 경계도 시키는데 구절만이 아니라 국사에도 실렸고 말고, 계묘년 동짓달엔 변방의 경보가 급하여 내가 또 향을 받아서 급히 달려가면서 한 장의 흰 종이에 상께서 서명한 것을 내 손가락 세에 쥐고 매우 감읍했는데 용인들이 패주하고 조정이 청명해지니 지금도 선왕의 명철함을 다 노래한다네. 회상하건대 내 젊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우러러 예배하고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